

월계1동사무소 주변 '여성 밤길 주의' 평동산단 있는 옥동 일대는 '불조심'

광주 광산구 무안 생활안전지도 들여다보니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상세 표시 "범죄지도 알려져 집값 떨어질라" 반대도

여성들이 광주시 광산구 월곡·월계동을 오갈 경우에는 여성 범죄가 많은 '레드존'인 만큼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게 좋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학원 등으로 수완동 성덕교~수완지구대~신창동 부영사랑 아파트로 이어지는 구간을 빈번하게 지나간다면 교통사고 예방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1일부터 광주 광산구·무안군 등 전국 15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살펴본 광산구 주요 지도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간단한 클릭, 터치만으로 지도를 통해 광주 광산구와 무안군 내 생활 안전 지도를 들여다볼 수 있다. 예컨대 성폭력·강도 사건 발생이 어느 동네에서 많이 발생했는지, 노인들이 교통사고를 자주 당하는 도로가 어디인지, 초등학생들 사고가 어느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른바 '범죄지도'다. 공개 전부터 논란이 됐던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 뿐 아니라 '우범지대'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반대의견도 여전하다.

■ 여성범죄 다발지역



■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1km 주변이 지난 1년간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강도·폭력·절도 등이 가장 빈번했던 것으로 표시됐다. '흰색'으로 표시된 '클린' 지역을 찾아보는 것도 안전에 도움이 된다.

강도는 운남·우산·월계동에, 절도는 신창·월계·우산동 일대가 진한 적색으로 표시됐다. 무안군도 ▲성폭력(몽탄·정계·삼향) ▲강도(삼향·몽탄·정계) 등으로 빨간색이 표시돼 있다.

지도로만 보면 앞으로 이 일대 공영 산책로, 주택가 골목 등을 지나다닐 때는 한층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교통사고 빈번한 도로를 파악해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다. 3년(2011~2013년)간 통계로 분석된 광산구 내 어린이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으로는 수완동 성덕교~수완지구대~신창동 부영사랑으로 아파트까지 1.8km 일대와 신촌동 공항입구와 운남동 어등산악국 사거리 등이 파악됐다. 승용차 운전자가 리 일대에 노인 보행자 사고가 많은 만큼 운전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동산단이 있는 옥동 일대는 지난 2년간(2012년 7월~2014년 4월) 발생한 화재로 피해가 가장 컸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광산구 내 47억3653만원의 화재 피해액 중 옥동에서만 20억7152만원의 피해를 봤다. 돼지 사육 농가가 많은 무안군 정계면도 같은 기간 무안군 내 전체 화재 피해액(31억2213만원) 중 32.2%(10억682만원)을 차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시범서비스를 접해본 반응도 다양하다. 당장, '우범지역'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가 하면, 부동산값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는 반발의견도 터져 나온다. 반면 미리 예측할 수 있어 대비가 가능하게 됐다는 말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점차 서비스 대상을 늘리는 등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용기자 pboxer

이윤자 광주여성재단 대표, 직원들에 특정후보 지지 요구 논란

관용차 개인 용도 이용 제보도 이 대표 "직원에 강요한 적 없어"

광주여성재단 이윤자 대표이사가 6·4 지방선거 당시 재단 직원들에게 특정 광주 시장 후보를 지지하라고 요구하고, 업무용 관용차량을 개인 출퇴근 용도로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재단 내부 직원으로 보이는 익명의 제보자는 9일 문건을 통해 "이 대표이사는 올 초 강운태 전 시장의 사조직인 '창조포럼'과 펀드에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

도록 했으며,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현재 광주YWCA 이사로서 있는 이 대표이사는 매년 직원들에게 YWCA 후원 회원 가입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원들의 출장 용도로 사용해야 할 관용차량을 지난 몇 년 간 개인 출퇴근 등 개인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직원들의 선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문건에는 이와 관련한 재단 문서와 내부 망 사진 등이 함께 첨부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이사는 "친한 직원 몇몇에게 강 시장 포럼과 펀드, YWCA 회원 가입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직원들에게 강요한 적은 없다"면서 관용차에 대해서는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추석 선물은 경영지원팀에서 관리했지 나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이사의 임기는 2015년 4월까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5·18사건...숙연한 어린이들 9일 광주시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열린 '5·18 사진전'에서 어린이들이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5살짜리 꼬마 상주의 주인공인 조천호씨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5·18 기념재단이 주최한 이번 사진전은 5·18 역사예곡을 바로 잡기 위해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복구 미숙한 행정...혈세 날릴 판

토지 보상 명의 확인 소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차질

광주 신안·중흥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이 복구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차질을 빚고 있다.

9일 광주시 북구의회 고점례 의원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2월부터 광주시 북구 신안동 1355㎡ 부지에 50억 원(국비 27억 원·구비 23억 원)을 투입, 신안·중흥노인복지관 및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구가 사업예정부지 땅·건축물 소유주와 보상절차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업무처리로 혈세 누수와 함께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28일 땅 소유주에게 보상금이 지급이 완료되면서 같은 해 12월 27일 착

공이 이뤄졌으나 올해 1월 15일 이후 공사가 중지됐다. 해당 부지엔 아버지(두 채)와 아들(한 채) 명의로 돼 있는 세 채의 건축물이 있는데, 구가 아버지에게 세 채의 보상금(8억800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땅·건축물 등에 대한 명의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가.

구는 지난해 말부터 땅·건축물 소유자와 협의가 이끌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건립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공탁과 절차에 따른 수용 개시 뒤 이달 초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해당 건축물에 대한 등기말소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치킨 외상 거절당하자 흥기 협박



○... "치킨 가격이 비싸다"며 외상을 하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집에서 흥기를 들고와 종업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9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모(53)씨는 이날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A지킨집에서 종업원 손모(22)씨 등 2명을 폭행한 뒤 치킨집에서 5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흥기를 들고와 "죽여버리겠다"며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

○...이씨는 손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치킨 가격이 2만 원이나 되길래 외상해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파출소·지구대가 본 우리동네 치안 특징은?

경찰 홈페이지에 46곳 요약 우범지대 낙인 역효과 우려도

'지평·상무·유덕동 일대는 최대 원룸촌이 형성돼 강·절도, 성폭력이 많다.' '신가·신창·수완·장덕·흑석동 일대는 주민 참여의식과 준법 정신이 미흡하다.'

각 동네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들이 본 동네 특징이다. 5개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46곳이 지구대별로 맡고 있는 마을·동네를 수시로 순찰하

면서 파악한 동네 특징이 3~4줄로 요약, 사실적으로 설명돼 있다. 주민들에 대한 평가를 엿볼 수 있는 점에서 반론도 나온다.

서부경찰 상무지구대는 담당 구역을 '신중 최대 상업지구와 원룸촌이 형성돼 강·절도, 성폭력 사건이 많다'고 솔직하게 소개했다. 동천파출소는 재개발 예정지(광천동 일대)가 있어 향후 집단민원이 예상된다고 썼다.

광산경찰 월곡지구대는 관할 구역 주민들의 경제 생활까지 파악했는지 담당 구역(월곡·운남·산정동)을 '신도심 계

발로 상가지역이 조성됐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입으로 전업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해 순박하고 정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으로 관할 구역을 평가(동곡·평동 파출소)하는가 하면, '도·농간 생활환경 격차로 인해 농촌지역 소외감이 형성됐고 주민의 참여의식과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는 평가(수완지구대), '유형업소와 서민(영세민)이 밀집한 지역이라 폭력, 빈집털이 사건이 빈발하게 발생한다'는 평가도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 경매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우면서 투자 가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연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투자자 모심

- 1억~10억원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건물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
4층-35평, 주택

■ 일반/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임
→ 대지 전체, 건물 1/3 지분 낙찰
→ 건물 1/3 지분 일반 매입
→ 건물 1/3 지분 낙찰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대출 3억5천 가, 보 2억에 월 300만원 포함
- 엘리베이터, 전체 올 수리
- 공인 중개사 공동 중개 환영
- 주인 직매 HP. 010-3605-5000



■ 29평 -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형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시 세 - 1억원 정도
매매가 - 72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오피스텔 매매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77평 - 20층
사무실 전용
창가 코너, 최상층, 전망좋은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룸 2개 사무실 1개
시 세 - 3억5000만원
매매가 - 2억5500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